

“봉사는 나를 위한 소중한 선물”...

정형자 씨 (조계종자원봉사단원)



정형자 씨는 ... 1993년 불교간병인협회에서 전문 교육을 수료하고 자원봉사를 시작해 보훈병원, 동부시립병원, 서울대병원 등에서 병원일을 거들어왔다. 국립재활원,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목욕봉사를 20년 가까이 해오고 있다. 그 외에도 조계종자원봉사단원으로서 수해복구, 노숙인 급식 등에 나섰으며 군법당, 복지관 등에서 급식봉사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로로 2001년에는 행정자치부장관상을, 2014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왜 하나구요? 글썄요. 불자로서 보시는 당연하잖아요. 저는 가진 돈이 없으니 몸으로 보시하는거죠.”
정형자(66) 씨는 23년간 거의 매일 봉사로 삶을 꾸려왔다. 몸이 아플때도 약을 먹어가며 그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나타났다. 철마다 수해피해를 입은 곳에 복구작업을 하기도 했고 병원에서 환자를 목욕시키기도 했으며 외롭고 적정한 이들을 찾아 말벗도 돼주었다. 160센티가 못되는 키에 44킬로그램의 여린 몸을 이끌고 다니면 주위에서는 ‘간병반아도 시원찮을 몸에 누구를 보살피냐’면서 우려섞인 감탄을 보냈다. 노숙인과 어르신들을 위해 밥을 짓고 김치를 담그던 정 씨 손에는 어느새 정부에서 주는 장관상 두 개가 손에 쥐어졌다. 2001년에는 행정자치부장관상, 최근에는 문화체육부장관상을 받았다.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준 헌신적인 삶에 바쳐진 훈장이었다. 무재칠시(無財七施) 중 신시(身施)로써 누군가의 팔다리가 되어 살아온 그녀의 보시바라밀 삶을 들여다본다.

손 좀 잡아줄 수 있나요?
정 씨가 조계종 봉사단원으로서 일하기 시작한 것은 1993년 12월, 불교간병인협회 교육공고를 보고 간병인 일에 지원하게 된 것이 계기였다. 그전에는 불교방송에서 진행하는 사찰순례팀에서 한 달에 한번 남짓 참가자들을 인솔하는 봉사를 했었다.
“가게에 보탬이 되려고 간병인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1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도무지 체력이 받쳐주지 않더라고요. 원래도 몸이 약했는데 간병인 일이 좀 힘들어가지요. 도저히 할 수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관두려고 했는데 내 자신이 건방지게 느껴지면서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어설피게 텀버들었다가 몸이 힘들다고 그만두는게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봉사는 할 수 있겠다 싶어 시작한 게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정 씨는 진솔한 성품이었다. 생계를 걱정해야할만큼 팍팍한 삶이었는데도 바른 심성을 잃지 않고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2주간 간병인 교육을 받고 바로 서울 둔촌동 보훈병원으로 봉사를 나가게 됐다. 대부분 환자가 장기 입원 중이라 사람이 그리운 이들이 대다수였다. 손 좀 잡아 줄 수 있겠냐는 말이 가슴에 박혔다. 어떤이는 그렇게 잡은 손을 한참이나 꼭 붙들고 있었다. 사람 온기가 무엇보다도 그리운 아이들이었다. 그녀는 환자들을 일일이 챙기며 그들이 하는 말에 차분히 귀기울였다. 신문을 보고 싶다고 말하면 집을 나갈 때 챙겨갔고 불자였던 환자들이 염주를 부탁하면 그러마하고 조계사 근처에서 사다줬다. 그때부터 염주를 가지고 다니며 관심을 보이는 이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아마 지금까지 수십, 수백개는 나눠줬을 것이다. 몸은 물론 마음마저 약해진 환자들에게 그녀가 나눠주는 염주는 종교를 막론하고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안식처가 됐다.

매주 금요일이면 환자들은 아침부터 머리를 감고 옷을 갈아입는 등 부산을 벌였다. 그녀가 속한 봉사단을 맞이하기 위해서였다. 조금씩 환자들에게 정이든 그녀는 오가는 이 없이 늘 혼자 오도카니 앉아있던 할아버지한테 유독 마음이 쏠렸다. 거동을 못하

던 할아버지는 말수도 적었고 가족도 없었다. 가끔 조카가 오간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다. 불자였던 할아버지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1년이 좀 넘어서였을 거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임종하기 며칠 전,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던 할아버지 얼굴이 계속 생각났다. 울고 또 울었다. 집에서 걸레질을 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도 할아버지 생각이 평평 울었다. 죽음이 서글펐고 외로웠던 할아버지의 삶 또한 그랬다.
“같이 봉사다니던 분이랑 들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렇다할 추억을 쌓은 것은 아니었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쓰였던 분이 그렇게 돌아가시니 그냥 그 자체로 슬펐어요. 그 후로 기도할때마다 할아버지가 극락에 가시길 빌었어요. 다른 봉사자분은 할아버지를 위해 집에서 49재를 지내줬다고 하더라고요.”

1993년 불교간병인협회 첫 노크

목욕봉사 및 노숙인 급식 등 진력
서울대 병원서 14년간 봉사행 펼쳐
행자부·문광부 장관 표창 수여

20년 새벽기도로 신심 다져

여객갈때 경전 가장 먼저 챙겨

1995년 생명나눔에 장기기증 서약

2년 후 자녀들도 따라서 동참

만남은 짧았지만 기억은 길었다. 지금도 그 할아버지가 문득 문득 생각난다는 정 씨 눈에 그리움이 선했다.

당시 보훈병원까지는 집에서 두 시간이 넘는 거리였지만 그런 걸 따져보고 다니지는 못했다. 이렇게 열심히 다닐 수 있었던 데는 불교간병인협회를 맡고 있었던 정진 스님의 가르침이 컸다.

귀감이 돼 준 스님

정진 스님은 평생 병들고 소외된 자들 곁에 있던 분이였다. 보훈병원에 법당이 없는 걸 알고 보훈처를 수차례 오가며 결국 병원 구석진 자리에 법당을 개원했을 정도로 환자를 위한 마음이 극진했다. 법궁경 등 경전테이프를 한가득 가지고 다니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물차 기사들이 쉬고 있으면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정도로 포교에 열성적이기도 했다. 스님의 자동차는 항상 나눠줄 물건들을 바리바리 싣고 다니는 바람에 바닥이 내려앉은 정도였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정진 스님은 지금 생각하

도 참 존경스런 분이예요. 스님은 저희에게 매일 봉사하러 나와도 부처님오신날이나 초하루날에 빠지면 봉사 의미가 퇴색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는 사람들을 떠올려보라는 거였죠. 환자들에게는 그래도 그 날이 좀 더 다른 날보다 설레는 날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각자 초파일을 보내기 위해 빠진다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나면서요. 정진 스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 늘 있던 자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절에 가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을 쌓는거라 하셨죠. 제게 대단한 교훈을 주신 분이예요. 돌아가신게 너무 안타까워요.”

정 씨는 그 후로 부처님오신날이면 절 대신 봉사현장을 지켰다. 아니 봉사하러 다니면서는 절에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다. 교리공부를 본격적으로 해본 적이 없지만 평생 약자들을 돌보며 부처님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정진 스님을 보며 부처님의 자비를 본받아왔다. 정 씨 말대로 스님의 행동과 생각은 주변인 모두에게 귀감이 됐다.

좀 더 힘든 일을 찾아

그러다 1995년 국립재활원으로 봉사장소를 옮기게 됐고 2004년부터는 집에서 가까운 상계동 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 한 달에 두 번씩 목욕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좀 더 힘든 일, 보람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목욕봉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목욕봉사는 봉사중에서도 힘들고 어렵다고 소문난 일이었다. 오죽하면 조계종사회봉사단 목욕 봉사팀에 10년째 인력충원이 안되고 있는 곳이 허다할까.

장애인복지관에는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다수라 1명당 4명의 봉사단원이 팀을 이뤄 목욕을 시킨다. 옷 벗기는 것부터 만만치 않기에 하루에 10명 정도 씻기고 나면 말할 수 없이 녹초가 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목욕봉사가 힘들다는 것은 봉사자에게도 해당되지만 서비스를 받는이에게도 마찬가지다. 내밀한 신체를 타인의 손에 맡겨야 될 때 느끼는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정씨는 상대방의 이러한 감정마저 씻겨야 한다.

“중풍에 걸렸거나 허반신 마비가 된 이들을 씻기다 보면 그대로 불일을 볼 때가 있어요. 감각이 없으니 자신이 큰 일을 봤는지도 모르죠. 그러다 그 사실을 알게되면 어쩔 줄 몰라하며 연신 죄송하다고 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아니다 몸을 움직이니까 이렇게 배변도 보고 얼마나 잘된 일이나. 시원스럽게 불일 보니까 우리도 멍달이 기분 좋다’며 다독이고는 해요.”

물론 처음에는 환자처럼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더 민망해하고 있을 상대를 생각하니 내색을 할 수가 없었다.

“우리 팀은 그런 상황이 닥치면 너나 할 것 없이 ‘관세음보살’ 하고 중얼거려요. 기독교인들이 놀랄 때마다 하느님 찾는 것처럼 우리도 관세음보살님을 찾는 거죠.”

정씨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봉사의 첫 마음을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 관세음보살을 찾으며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게 되길, 자비심을 되찾을 수 있게 되길 짧게나마 기도했던 것이다.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 활동으로 부처님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존경받는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의 소중함속에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부처님 불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기를 서원하며 수행 정진하는 먹물 옷에 취하지 않은 스님다운 스님, 머리로 살지 않고 가슴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부처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암자, 포교당 스님(원장)들의 종단 가입을 바랍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종단의 주인공이 되어 보십시오.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대통령으로부터 승려 최상 최고의 품수를 받은 대승정 목탁스님.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작위

아까(AGGA)라는 뜻은 맨위, 첫 번째, 최고의 뜻을 가진 승려로서는 더 이상 누릴 수없는 최고의 품수라는 뜻.

마하(MAHA)는 큰, 크다는 뜻이고 사다함마 다(하)자(Saddhamma Jotikadhaia)는 봉사 및 인간방생에 많은일을 하신 성스러운 승려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베풀 의로운 사람이란 뜻으로 표현한다.

종 정 목탁혜은 부 종 정 불원혜정 원로원장 보각 기획원장 법성
총무원장서리 지암 부 원 장 고산
포교원장 현담 교육원장 청은 호법원장 진성 감찰원장 송몽 총회의장 도암 원로의장 심오 비구니회장 대연
종단부장 : 현관, 법산, 지명, 휴암, 종암, 금산, 여승, 진일, 개오, 도광, 월산, 원광, 송운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종교법인 국제선불교 조계종
대표전화 02)733-5665. 팩스 733-5671. H·P : 011-229-6061